

IPPF(International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공여국 회의 결과

국제적십자사에 이어 세계 두 번째 규모의 국제 NGO이자 가족계획 및 성생식보건 분야 세계 최대 국제 NGO인 IPPF는 2008.1.28~29간 런던에서 IPPF 공여국 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공여국 회의에서 '존스 홉킨스 블룸버그 공중보건 스쿨'의 Duff G.Gillespie 박사는 우리나라의 가족계획사업을 민관 통합 보건 시스템의 최우수 사례로 소개 하는 등 회의 참석자들이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과거 우리나라는 우리의 가족계획사업에 IPPF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으나 이제는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증대함으로써 IPPF와 공동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다. 우리는 ODA 사업 수행에 있어 성생식보건 전문 기관인 IPPF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우리나라의 민관 통합 보건시스템의 개발경험을 널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 : 정책연구실]

I. IPPF 공여국 및 기관간 협의회

가지 전략을 설명함

1. Jacqueline Sharpe IPPF 회장의 환영사 : IPPF 및 회원의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3대 전략

- Jacqueline 회장은 2007년 IPPF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준 회원 및 임원진, 관련 활동가들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였으며, IPPF 집행이사회(Governing Council)가 회원 및 IPPF의 Good Governance를 위해 채택한 다음 세

① IPPF Code of Good Governance 개발

- IPPF의 성과 사례를 구성하는 7가지 기준(code)을 개발하였으며, 이 기준이 향후 IPPF와 협회의 활동 지침이 되어 협회의 관리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

② Volunteer(외부 임원진 및 관련 활동가)에 대한 IPPF 정책 변화

- 새로운 활동가들을 확보하고 현재 활동하

고 있는 활동가들에게는 새로운 기회, 정보, 교육을 제공하여 책임의식과 리더십을 형성시킬 수 있도록함

③ 모범 활동가들에 대한 상 수여

- IPPF 집행이사회가 성생식보건 권리(SRHR :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Rights)에 괄목할만한 기여를 한 협회 및 활동가들에 대해 상 수여

2. 2006/2007년 리포트

: Gill Greer 사무총장

: 아프리카 사업에 초점, 성권리 개념의 중요성, 시민사회의 역할

■ 사무총장은 2008년에는 아프리카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아프리카지역에서의 성생식보건 서비스 강화야말로 국제인구개발회의(ICPD) 아젠다, MDGs, 마푸토 행동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라 설명함

-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된 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대와 우간다 난민 증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모성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인 가족계획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언급함

■ 또한 IPPF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5A(① safe abortion ② HIV/AIDS ③ Access ④

Adolescents ⑤ Advocacy)가 MDGs 목표 달성 및 빈곤퇴치를 위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서비스 제공 강화, 가족계획, 생식보건, HIV/AIDS가 통합된 사업 추진, 그리고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강화를 강조함

■ 무엇보다 여성의 교육 기회 확대, 성적 자기 결정권 강화 등이 가족계획, HIV/AIDS 방지 그리고 빈곤퇴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인권 차원에서 성적 권리(Sexual Rights)를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한 통합적 Sexuality 교육 프레임워크 개발, 성권리장전(Bill of Sexual Rights) 마련을 위한 회원들 간의 협의와 의견 조율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함

■ 또한, 회원심사(Accreditation) 과정을 통해 말라위와 에콰도르가 신규 회원이 되었으며, 남남협력(South-south networking)과 파트너십을 강화해 갈 것을 강조함

■ 아울러 지속적인 Advocacy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그 성공사례로 2007.4월 세계은행 보건·영양·인구정책에서 가족계획의 중요성이 평가 절하될 위기에 처하였으나, IPPF 및 성생식보건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Advocacy 활동을 통해 관련 내용이 세계은행 전략에 유지될 수 있었던 활동을 이야기함

■ 또한 생식보건 서비스가 국가 예산, 국가 빈곤

감소전략, MDGs 달성 전략 등에 통합되어 전
달될 수 있도록 국가의 주인의식 제고 및 이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함

3. 재정보고

- 2006 IPPF 연맹 회원국들의 재정 총액은 272.7백만불이며, IPPF 회원들의 평균 재정구성은 국제사회의 지원금이 12%, IPPF를 통한 지원금 23%, 지역수입 65%로 구성되어,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특히 2006년 아프리카지역 회원들의 재정은 국제지원 30%, IPPF 지원 11%, 국내조달 14%로 형성되어, 서반구지역이 각각 10%, 11%, 79%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과 크게 대조됨.
- 2006년 IPPF를 통해 회원들이 받은 지원금은 96.4백만 미불이며, 이 중 비제한적기금(Unrestricted fund)이 85%, 특정목적에 쓰이는 제한적기금(Restricted fund)은 15%를 차지하고 있음
- 2007년 각국 정부 및 재단의 Unrestricted 기금은 총 76.7백만 미불로, 주요 공여국은 영국(19%), 스웨덴(19%), 일본(15%), 덴마크(10%), 노르웨이(9%) 등 순임
- 2006년 주요 Restricted 기금은 EC(3.575백

만불), 빌게이츠멜린다재단(1.255백만불), 독일정부(775천불), 일본정부의 HIV/AIDS 신탁기금(1.002백만불), UNFPA(3.228백만불), UNAIDS(1.098백만불) 등으로 이루어짐

- 2008년 IPPF 예산은 Unrestricted 기금이 74.9백만불로 6.8% 증가하였으며, Restricted 기금 역시 'Safe abortion action fund'로 인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4. 소외그룹의 수요 충족과 2006 Global Indicators의 시사점

- Global indicator(GI)는 IPPF 협회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것으로 IPPF는 2006년 global survey (22개 지표)와 온라인 통계 모듈(8개 지표)을 제출하였으며, 이 지표를 2007년도 사업에 적용하여 심도 검토하였음
- 검토 결과, 협회들의 사업이 소외계층 및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며, UNDP 인간개발지수와 빈곤상황 기준 대비 최고 지원 필요 지역에 IPPF 사업의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음
- 이는 또한 공여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어짐

5. Bill of Sexual Right(성권리장전)

: 협의와 조율을 위한 다각적 접근

- 성권리(Sexual Rights)는 개인의 성행동, 성적 욕망, 성적 가치관 등(Sexuality)에 대한 인권 중심적 접근이며, 성권리장전(Bill of Sexual Rights) 제정은 IPPF의 비전과 역할의 근본이 되는 것으로 개발, 양성평등, 인간의 존엄성, 자유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음
- IPPF는 성권리장전 제정을 위해 여러 지역 관계자와 협의중이며, 이러한 지역 회의를 통해 다양한 문화와 관점의 차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Rabat Declaration(라바선언) : 아랍지역 성생식보건 컨퍼런스에는 국회의원, NGOs, 청년층, 종교단체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석하였으며, 그 결과물로 라바선언(Rabat Declaration)을 발표, SRHR이 개발에 있어 중요한 우선분야라는데 대한 인식을 함께하였으며 이는 Advocacy의 중요한 tool로 평가됨
 - 유럽 네트워크 워크숍 :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문제
 - 미주지역에서의 인권 전문가 위원회 발표 등

- 이에 대해 공여국들은 동 권리장전이 UN, WHO 등 다른 국제기구들에서도 채택될 수 있도록 IPPF가 노력하여줄 것을 요청함

6. 55년 후의 시민사회

- 1952년 설립 이후 초기 가족계획사업에서부터 1990년대 5A 수립, 성생식보건 서비스와 최근 성권리 개념 정립을 위한 활동까지 아우르고 있는 IPPF의 모든 성과가 NGOs 및 시민사회의 역할과 협조로 가능했다고 평가
- 이어서 IPPF는 향후 성생식보건 및 인구관련 회의들을 주관하여 NGOs 및 시민사회의 참여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갈 것을 약속함

7. 공여국 피드백

- KOICA
 - KOICA는 IPPF가 아프리카지역 보건사업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같이, 한국 역시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이니셔티브 발표, 항공권 연대기금 도입 등을 통해 아프리카 지역 질병 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함
 - 아울러 KOICA는 아프리카지역 보건분야 사업 확대에 따라 동분야 사업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다자기구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모색중인바, 보건사업에 대한 KOICA 인식의 지평이 넓어질 수 있도록 성생식보건 전문 기관인 IPPF의 경험과 지식을 지속적으로 공유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일본

- 국회의원 및 의사 결정자들의 관심을 이끌기 위한 IPPF의 지속적인 활동을 요청하였으며, IPPF가 아프리카 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도 초점을 맞추어 활동하여 줄 것을 희망하면서 IPPF가 세계 성생식보건 분야 전문 NGO이자 UN 자문기관인 점을 감안, 공여국의 공통적 문제인 고령화 문제에 대한 IPPF의 관심을 요청함

■ UNAIDS

- UNAIDS는 앞으로 에이즈 예방 활동에 더 주력할 것이며, IPPC가 AIDS 환자에게 대한 사회적 낙인을 철폐하는 등 권리에 기반을 둔 접근(rights-based approach)을 하고 있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 평가함

■ 캐나다 (CIDA)

- IPPF와는 오랜 협력관계를 구축하였으며, 성생식보건분야의 지속적인 Advocacy, 조사 자료들이 필요하다 언급함. 성생식보건을 통합한 보건시스템 강화가 중요하며, 성권리, 양성평등 문제를 다룬 증거기반한 사업 결과에대한 자료들을 번역, 자료를 배부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함

■ 스웨덴 (SIDA)

- 1992년도부터 참여한 이래, 성권리 현장 추진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평가하면서 지속적인 IPPF에대한 지원을 약속함. 덴마크를 포함한 4개국가와 함께 공적개발원조사업의 효율성을 평가한 결과 청소년 대상사업과 Advocacy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고 말하면서 향후 소외계층들 대상 이니셔티브 사업 개발을 요청함

■ 덴마크

- 글로벌지표를 이용한 청소년 사업 분석과 성권리 의안 추진한 깊은 인상을 표시함. 정치적 변화가 있었으나 정부의 성생식보건 사업에 대한 관심은 확고하며, 공여국 회의형식을 소규모 그룹으로 추진하는 것도 성생식보건사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생식보건을 통합하는 보건시스템 강화에 높은 관심을 보임

■ 휴렛 재단

- 기후변화와 빈곤퇴치는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됨. 향후 생식보건사업과 관련한 물품의 사용, 호르몬 등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IPPF 전략을 적용시 기후변화와 빈곤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바람

■ 노르웨이

- 성생식보건의 우선순위를 애드보커시, 청소년사업, 인공임신중절예방 등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활동해 줄 것을 요청함

- 환경요인을 중재한 성생식보건사업을 요구하였으며, 에너지부문과 양성평등을 통합하는 문제를 도전 과제로 제시함

■ 유럽위원회(EC)

- 주인의식, 파트너십, 원조조화, 국가전략에 있어서 약속을 이끌어 내는 것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였음. 2007년에 보건전략을 설정하면서 성생식권리, 양성평등을 정책에 통합한 전략(2010-2030)을 설정하였으며, 총 2억달러 관련 예산 중 86백만달러를 현재 배분하였다고 설명함.

■ 스위스

- 인권, 성권리장전 제정의 중요성을 확인함. 시민사회를 활용한 IPPF의 경험은 중요하며, 회원협회의 역량강화, HIVAIDS 신규정책, 생식보건을 통합한 보건시스템 강화 등 원조사업 실행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설명함.

- 국제사회에서 IPPF의 발언권이 지속되기 바람, 이미 WHO, UNFPA 등 관련 주요기관과 조사 연구를 다수 실행한 것을 알고 있

는바, 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결과보고 자료들을 제작 배부하여 증거기반(Evidence based) 사업을 실시할 것을 건의함

■ 독일(BMZ)

- IPPF 성생식보건 사업 보고에 감사하며, 지속 지원을 약속함. 향후 예정된 국제인구개발회의+15 (ICPD+15, 2009)에 대한 준비를 주도면밀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함

■ 뉴질랜드

- 소규모로 태평양지역의 개발원조를 지속해 오고 있으며, IPPF의 경험을 계속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함

■ 호주

- 청소년사업에 주력하려는 노력에 감사하며, 시민사회협력을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빌게이츠멜린다 재단

- 10년간 6억달러를 성생식보건사업에 지원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피임도구 보급에 중점을 두고, RH coalition(생식보건협의체)를 지원하였음을 설명함

■ 영국

- 범지구적으로 성생식보건 애드보커시를 확대하여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Safe abortion

fund 사업 발표에 사의를 표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 향후 5년간 2.5백만달러를 지원할 것임을 공표함

■ Butfett 재단

- 유엔인구기금 중앙아시아 지역대표, 덴마크 대표이기도 하였으며, 패커드 재단은 250백만달러를 가족계획과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사업에 지원하였으며, IPPF와 협력한 사업을 제안함. 의료서비스관리를 제공하면서 IPPF의 도움과 협력이 요구됨

■ 핀란드

- 환경요인을 cross cutting issue(횡적 부문 문제)로 다루어 생식보건사업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2007년 600,000유로, 2008년도 800,000유로를 지원 계획임을 공표함

■ 네덜란드

- IPPF회의는 공여기관들의 네트워크 구축에 유용한바, 국제사회에서 생식보건분야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요구하였음. 향후 3년간 IPPF를 지원할 것이며, 생식 보건물품제공, 청소년 사업,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성권리 의안 추진, 여성권익향상을 위한 사업을 계속하기 바람.

II. 보건시스템 강화와 시민사회의 역할

1. 보건시스템 강화와 성관련 보건 서비스

■ 현재 가족계획, 피임, HIV/AIDS 등 성생식관련 보건분야는 동분야를 명기하는 국가 예산 확보 실패, 훈련된 의료 인력 부족 등으로 활동의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수많은 공여기관들의 기금은 관련분야 국가개발계획에 효율적으로 통합되기 어려울뿐 아니라, 타 공여기관과의 원조조화(Donor Coordination) 역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각국이 성생식분야 관련 독자적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결정자를 설득하는 수직적 캠페인을 진행하는 동시에 시민사회 및 NGO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평적 캠페인을 통합적으로 추진하여야함

■ 이러한 민관 통합 보건시스템의 모범 사례가 바로 과거 한국의 가족계획사업인바, 당시 IPPF는 지속적으로 한국 정책결정자를 접촉하여 국가 개발에 있어 가족계획의 중요성을 설명하였으며, 한국 정부 역시 강력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가족계획 사

업을 포함여 정부, 민간단체, 보건소 등 민관이 함께 동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함

- 이에 당관 이원우 참사관은 과거 한국에 대한 IPPF의 가족계획사업에 사의를 표하고, 우리나라 역시 2006년 700백만불이던 ODA 규모를 2015년까지 32억불로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과거 원조수혜에 보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을 설명함

- 또한 한국 역시 지구촌 질병퇴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1993년UNDP가 추진한 국제백신연구소(IVI)를 유치, 백신 개발과 기술이전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게이츠재단의 지원에 사의를 포함

2. TICAD IV 및 G8 정상회담

- 2008.5월 요코하마 TICAD IV 회의와 2008.7월 홋카이도 도야코 G8 정상회담의 의제 중 하나로 인간안보 개념에 입각한 '보건시스템 강화' 방안이 논의되는바, 회의에 참석한 공여기관 관계자들은 일본 정부측에 이에 대한 의견과 제안을 전달하였음

- '보건시스템 강화'는 기존의 질병중심적 접근이 아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료인력 확보, 개인과 커뮤니티의 능력 강화를 포함하는 보다 통합적 접근이며, 이를 위해 일본은 정부, 국제 NGO, 민간기업, 학계 및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음

- 또한, IPPF, UNFPA, IOM, WHO, WB 등 보건분야 전문기구로부터 동 의제와 관련된 Policy Recommendation Document를 접수하여 구체 의제 형성에 참고하고 있음

- 공여국들은 2000년 G8 오키나와 정상회담시 일본이 발표한 'Okinawa Infectious Disease Initiative'가 AIDS 퇴치를 위한 'Global Fund' 설치로 이어진 것과 같이 금번 G8 정상회담에서도 가족보건, 모성보건 등 성생식관련 의제를 명기하여 성생식보건 관련 기금이 조성되는데 힘을 실어주기를 희망하였으며, 포괄적인 보건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또한 특별히 언급되어지기를 희망하였음

[자료 : 주영국대사관]